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3월 28일(금) 제 3064호

무주 산불 진화 간절한 비 26일 밤 9시 20분경 무주군 부남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20ha가 소실되고 주택 2채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무주군>

무주 산불 이틀째 오늘이 확산 고비

농가 저온창고 전기 누전 원인 추정…주택 2채 전소 피해
이틀째 완전 진화 실패…재확산 우려도

26일 밤 9시20분께 전북자치도 무주군 부남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20ha가 소실되고 주택 2채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발생 이틀째를 맞아 행정 및 소방당국은 산불진화에 총동원을 내린 가운데 27일 오후 5시 기준 85% 가량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이날 저녁이 다가오면서 완전 진화를 못한채 작업을 중단해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주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부남면 한 농가의 저온창고에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바로 옆에 있는 야산으로 발화되면서 확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당국은 공무원과 군진화대, 의용소방대, 군부대를 비롯한 헬기 4대, 소방차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무주군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인근 마을주민 280여명에 대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다행히 산불인근 현장에 남대천이 흐르고 있어 헬기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무주군 한 관계자는 "이날 3시 현재 산 곳곳에서 회색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비가 내려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덕산에테르시티 완주공장 준공

전북 수소산업 도약 신호탄…테크노2산단 227억 투자
'이음매 없는 압력용기' 기술 보유 본격 가동
초대형 압력용기 연 400대 생산 거점 구축
글로벌 인증 확보로 국내외 시장 공략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을 이끌 덕산에테르씨티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전북자치도는 완주군 봉동읍에서 수소산업의 핵심인 초대형 압력용기를 생산하는 덕산에테르씨티가 신규공장을 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덕산에테르씨티 위호선·이수훈 공동대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 유관업체 임직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도약을 축하했다.

덕산에테르씨티는 지난 2023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약 6,400평 규모의 부지에 신규 공장을 건립, 준공했다.

준공된 완주 신공장은 초대형 압력용기를 연간 400여 대 생산 및 재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도는 기존 부산·부안 공장의 생산능력과 합산해 연간 약 6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덕산에테르씨티 완주공장은 KGS, DOT 등 글로벌 인증 획득으로 다국적 승인 용기의 법정 재검사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며 최고의 품질 보장함으로써 국내·외 수소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덕산에테르씨티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혁신의 선봉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기원한다"며 "수소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완주 수소특화단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완주공장 준공이 완주가 수소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건설 전문컨설팅 첫발

전통문화·첨단기술 융합 미래문화도시 청사진 그린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시작했다.

전주시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컨설팅 위원 2명이 전주를 방문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지난해 추진된 예비사업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102억원과 도비 30억6천만원, 시비 205억4천만원을 확보해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첨단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 및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전략적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하고, '탄소예술 활성화 사업'과 'K-컬처 광역여행벨트 구축' 등 지역문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박차를 가한다. 앞으로도 문화·기술·산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문화도시 위원회와 함께 사업체계를 강화하고, 전주시·시민·예술가·기업이 협력하는 민관협력지원단을 구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주 전역에 걸쳐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산업의 상생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을 통해 현재 팔복동의 옛 휴비스여성기숙사를 리모델링해 '미래문화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곳이 △융합콘텐츠 창·제작 랩 △전시공간 △예술가 및 기업 입주 공간 △교류·연구 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전주의 새로운 문화시장을 창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는 또 '문화올림픽'이라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콘텐츠로 전 세계에 전주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2036년 올림픽과 연계한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세계무대에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이 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AI 활용 국악작곡 공모전 △탄소문화상품 개발 △유휴시설 문화공간 활성화 △시민주도 문화예술활동 '만사OK' 등의 다양한 예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지난해 10월 팔복동 일원에서 열린 '미래문화축제'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정재근 기자

오늘 전북타임스 창간 14주년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전북타임즈 최준호 사장 창간사〉

지방 언론의 새로운 길을 열며

시절은 하수상해도 천지간에 꽃입니다. 눈길 가고 마음 가고 발길 닿는 곳마다 꽃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벚꽃도 이제 난만(欄漫)하게 꽃을 피워 주위를 휘황하게 밝힙니다.

꽃향기 농욱(濃郁)한 이 계절에 '전북의 빛과 소금, 도민의 희망이 되겠다'는 웅혼한 포부를 안고 첫발을 내딛은 전북타임스가 오늘로 창간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자 여러분의 신뢰와 관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온 전북타임스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언론의 역할을 다시금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언론이 해야 할 역할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지방 언론의 핵심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전북타임스는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며, 진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뉴스 소비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독자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제공하며 독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대안 언론'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언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입니다. 전북타임스는 앞으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비판이 필요한 곳에서는 엄정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되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언론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독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전북타임스는 '사람 중심의 뉴스'를 추구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지역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문제 등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언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전북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 지역 예술인의 활동, 그리고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전북타임스는 지역문화의 소중함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SNS와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독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보다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북타임스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독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전북이 경제적으로는 뒤쳐졌다 해도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사람 중심도시, 행복도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북타임스는 보도 준칙의 포커스를 '도민행복 성장정책'에 맞추겠습니다.

도민들의 희망이 되는 뉴스, 밝고 건강한 뉴스, 미래를 준비하는 뉴스로 찾아가겠습니다.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전북타임스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창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전북을 대표하는 신뢰받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전북타임스의 모든 임직원은 또 다른 10년, 2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북타임스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멸 방지 30분 농촌생활권 전략 세워야"

전북연구원 김상엽 연구팀, 지역내 이동시간 단축 교통 인프라 구축 절실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활성화 방안으로 30분 농촌생활권으로 차별없이 모든 주민이 필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모빌리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 김상엽 선임연구위원, 장세길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행된 이슈브리핑을 통해 '30분 농촌생활권' 모빌리티 전략이란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김상엽, 장세길 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차별없는 필수 생활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30분 농촌생활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시간도시 개념을 농촌기준에 맞게 반영한 단계별 모빌리티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촌은 현제, 생활서비스 접근에서 뒤쳐진 불편속에 보행뿐 아니라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더불어 유기적 도로망 공급이 제한적이라 생활권 연계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내 이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생활권 형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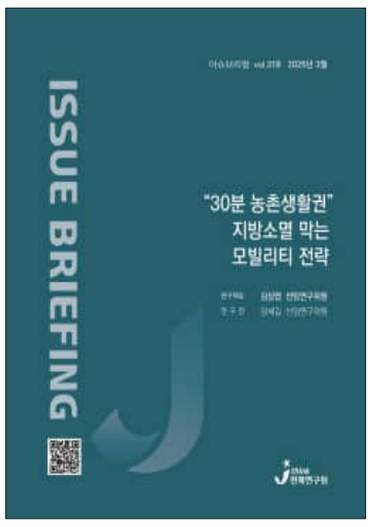
특히 계류 중인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에 관한 법률안, 지역 특성 고려한 30분 농촌생활권 구축, DRT 국가재정 지원,여객과 물류를 결합한 농촌형 자율주행 상용화, 광역적 접근성 위한 국가주도 교통망 지원' 등의 법제화가 매우 시급하며 이를 통해 시행근거가 확보되야 한다.

또 농촌 특성을 고려한 자율주행 버스 내 짐칸 마련 등 여객과 물류를 결합한 농촌형 자율주행 상용화로 30분이내 접근성 가능한 자율주행차량 지정 등 정책 지원과 함께 법적 규재 보완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농촌지역 1시·군 1철도 역사 건립이 매우 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만 이상 34개 군을 대상으로 철도역 유무와 인구 소멸지수 관련성을 분석한결과, 철도역 유무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지수 차이가 컸다.

김상엽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5만 이상 군 지역에 철도역 건립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이는 철도를 통한 광역적 접근은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호남권 시·군의회,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5개 시·군의장,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성명서 발표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을 비롯한 호남의 서해안 주요 거점 지역인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 의장들은 27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에서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는 서해안 중심의 남북축 연결을 위한 핵심사업인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시·군의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가 마련했다.

현재 국가철도망은 한반도의 동해와 남해, 서해를 연결할 U자형 철도망 중 유일하게 전북과 전남 구간만 단절된 상태이다.

함께 모인 의장들은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은 호남민의 철도 이용 기회와 권리를 빼앗고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우리 지역을 소멸시키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지역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은 "서해안 철도가 구축되면 지역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물류의 효율성 향상, 환황해권시대에 호남지역의 첨단산업 발전, 그리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 시·군 지역주민이 함께 기차 타고 서울 가는 그날까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윤준병 의원, 농업 안전망 구축 '농업민생4법' 재발의

양곡법·농안법, 농산물 사전적 생산조정 연도별 목표 수립 등 정부 책무 강화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27일 가격과 재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민생4법'을 재발의했다.

이번 재발의 배경은 지난해 발의한 '농업민생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게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그런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달라'고 답변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민생4법'이 통과됐으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농업민생4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농정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수정·보강한 '농업민생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해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무능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해 쌀값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완장치로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했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자급이 확보돼야 할 전략작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산물의 가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존중하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가재정이 감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제때, 제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농업민생4법'의 핵심이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농어업과 농어민이 보장받아야 할 생업요건들을 담은 '농업민생4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까지 입법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도민회, 8개 학교 체육 인재에 장학금 전달

8개 학교, 9개 구기 종목 500만 원씩 지원

재경 전북특별자치도민회(회장 곽영길)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체육 우수인재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우수 인재 장학금 지원은 학생선수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8개 학교 9개 종목에 500만 원씩 전달됐다.

지원 대상 학교는 △전주고 야구부, 농구부 △전주공고 축구부 △전주근영여고 배구부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부 △군산상일고 야구부 △이리고 축구부 △남성고 배구부 △전북제일고 핸드볼부 등이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경 전북도민회 곽영길 회장을 비롯해 8개 학교 교장, 감독교사 등이 참석해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곽영길 회장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지원하는 것은 재경 도민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재경도민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 선수들이 올림픽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재경도민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교육청도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기상 데이터 활용 악취 확산 예측 기술 개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주기상지청은 27일 전주기상지청에서 '전북혁신도시 축산냄새 기상 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상 정보와 악취 배출원 데이터 융합으로 악취 확산 경로를 사전에 예측해 악취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축산악취 관련 자료 제공 및 분석 ▲서비스 설계 및 기술 적용 ▲기상 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 및 기술 이전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축산악취 저감 정책을 지원하고 악취 중점 관리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상지청과 협력해 과학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접근으로 보다 정밀한 악취 확산 예측 정보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인 저감 방안 마련으로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 또한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상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과 기상지청은 향후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한솔제지, 한지문화 보존·계승 맞손

한지문화 보존 및 한지산업 생태계 구축 협약… 닥나무 재배·공급 확대 등 협력

천년한지의 본고장인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전통한지 보존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종이회사인 한솔제지(대표이사 한경록)와 손을 맞잡고 한지문화 창달에 나섰다.

전주시와 한솔제지는 27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문화 보존과 한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와 한솔제지는 △닥나무 재배 및 공급 확대 △한지 후계자 후원 및 양성사업 등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시와 한솔제지는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닥나무 재배지원을 통해 한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한지의 품질유지 및 산업적 활용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해 온 전통한지의 한계를 벗어나 전주 전통한지 원료 국산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와 한솔제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지 후계자 후원 및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한지 제작 참여를 유도하고, 한지 장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돕는 등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는 안정적인 닥원료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를 농가와 계약재배 후 수매해 공급하고 있으며, 전통한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30년 이상 전주에서 한지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전주 전통한지의 명맥을 이어온 한지 장인들을 '전주한지장(韓紙匠)'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해에는 '전통을 잇고, 혁신을 더해, 세계를 도약하는 한지도시'라는 비전 아래 △품격있는 전통한지 △성장하는 기계한지 △상생하는 전주한지의 3대 전략과 7대 주요과제, 17개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전주한지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전주시와 한솔제지는 27일 우범기 전주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문화 보존과 한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

우범기 전주시장은 "국내 최대 종이업체인 한솔제지가 한지 보존과 계승을 위한 파트너로 전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전주 한지산업 육성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설공단, '튼튼머니' 적립 시설 확대

덕진수영장·완산수영장 등 추가…총 12시설로 늘어

전북자치도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스포츠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공단은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기존 완산생활체육공원(인공암벽장, 실내테니스장)과 전주실내배드민턴장 2곳에서 총 12개 체육시설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튼튼머니 적립시설로 등록을 마친 체육시설은 총 10개로 덕진수영장과 완산수영장,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도내기샘국민체육센터, 라온체육센터, 에코체육센터다.

튼튼머니는 체력진단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스포츠용품을 구매하거나 병원, 약국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서비스다.

운동을 시작할 때 한 번, 30분 운동 후 끝날 때 한 번 QR코드를 스캔하면 1000포인트가 적립된다.

하루 1회, 주 3회, 연 50회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1000포인트 단위로 스포츠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튼튼머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포인트 전환 신청과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스포츠복지서비스 확대로 시민들에게 스포츠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공직자 평균재산 7억 9083만원 등록

2025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20억 이상 20명 달해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도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시군의회 의원 196명 등 총 201명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내역이 포함됐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된 재산 내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2024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연말까지의 변동 사항이 반영됐다.

2025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결과,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약 7억 9,083만 원이며, 재산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 원 미만 보유자가 77명(38.3%)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신고 내역을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변동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변동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재산규모 현황 > (단위: 명)

전체	1억원 미만	1억-5억	5억-10억	10억-20억	20억이상
201 (100%)	24 (11.9%)	77 (38.3%)	61 (30.3%)	19 (9.5%)	20 (10.0%)

※ 재산 증가자는 118명(58.7%), 재산감소자는 83명(41.3%)으로 전년대비 재산 증가자는 0.9% 포인트 감소, 재산 감소자는 0.9% 포인트 증가

※ 2024년 공개대상자(203명)의 경우, 증가자 121명(59.6%), 감소자 82명(40.4%)임

< 재산 증감내역 > (단위: 명)

구 분	전체 (201명)	1천만원 미만	1천만원-5천만원미만	5천만원-1억원미만	1억원-3억원미만	3억원-5억원미만	5억원 이상
증 가	118 (58.7%)	14 (11.9%)	58 (49.2%)	21 (17.8%)	20 (16.9%)	2 (1.7%)	3 (2.5%)
감 소	83 (41.3%)	16 (19.3%)	23 (27.7%)	22 (26.5%)	19 (22.9%)	2 (2.4%)	1 (1.2%)

※ 평균 증가액 : 8천 632만 원 / 평균 감소액 : 7천 869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전북도>

<사진=전주시>

전주완산소방서, 전기차 화재대응 특별교육

배터리 시스템 이해 이론·실습 등 이어져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본서 대회의실과 차고에서 전기차 화재대응 특별교육을 지난 26일 실시했다.

교육은 최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됨에 따라 관련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추진됐다.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전문 교관 2명을 초빙해 전기차의 기본 구조와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론 교육과 실제 차량을 활용한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고온·폭발·유독가스 발생 등 진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고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철저한 사전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기차의 정의와 유형, 구조 ▲차량별 배터리 위치 및 고전압 시스템 이해 ▲비상상황 시 차량 식별 및 고정 ▲실습 차량을 이용한 배터리 및 부품 차단 방법 실습 등이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와 달리, 순식간에 배터리 기온이 올라가는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예방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여성폭력·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전개

전북도여성안전지역연대 합동점검 실시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전라북도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함께 전주중앙여고 일원에 모여 여성폭력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지난 26일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50여 명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안내 홍보물 등을 전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증가로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여성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전주중앙여고 일원 공원 및 상가 내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다.

또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용 리플릿을 통해 도민들에게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안내하는 등 도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했다.

김철문 전북청장은 "여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여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 출범… 현장 지원 강화

28개 기관·119명 참여…실질적 문제 해결 중심 개편, 신속 대응 시스템 마련

'농생명기술SOS센터' 신설…기술적 애로 연구기관·전문가 연결 퀀텀점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훈 경제부지사, 라승용 민간위원장)가 27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공식 출범을 알렸다.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도내 농생명 산업 관련 국·공립 혁신기관, 대학, 지역 연구기관 등 도내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총괄위원회 ▲혁신기획단 ▲자문위원회 ▲5개 분과(그린바이오·푸드테크·스마트농업〈원예〉종자·반려동물)로 구성됐다. 총 119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며, 농생명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연구 및 기업·농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1기 위원회가 미래 기술 기반 국책사업 발굴에 집중했다면, 2기부터는 기업과 농가를 직접 찾아 실질적인 애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농생명 기술 SOS 센터'를 신설하고, 기업·농가의 기술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가 27일 총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사진=전북자치도>

위원회는 현장 지원뿐만 아니라, 도내 농생명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퀀텀점프 전략'도 추진한다.

해결 가능한 기술적 어려움은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즉시 연결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킨 후 정부 건의 및 국책사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제2기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만큼, 도내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 연구개발, 기업·농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도내 농생명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라승용 민간위원장은 "위원회가 기업과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많은 기업과 농가들이 기술적 애로사항을 적극 접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청렴 옴부즈만 행정·법률 전문가 위촉

신규 5인 선정…새만금 사업 투명성 강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새만금청의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신규 청렴 옴부즈만 5명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이며, 임기는 2년간이다.

새만금청은 신규 청렴 옴부즈만 5명과 함께 올한해동안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 소통채널' 운영과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며, 조직문화를 발전시키는 반부패·청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청년 창업·지속가능 환경 조성

전북도·도의회와 농식품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전북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도의원들과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 및 농식품 청년기업 등 도내 농식품 분야 주요 인사 20여 명, 지역 청년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정책 간담회 주요내용에는 청년 창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지원등이 논의됐다.

전북 지역은 인구 소멸 문제와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 청년창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도의회-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농식품 청년기업 간 논의를 거쳐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 청년기업 육성 정책이 지역 경제와 농업 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전북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은 "전북 청년들이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농식품 산업이 청년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농업 및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창업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진흥원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바이오 및 농식품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100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지역 청년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농공, 영농기 용수공급·유지관리 안전체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영농기 대비 용수확보 대책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상반기 수자원관리 현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농기 저수율 관리 및 용수확보 대책을 논의했으며, '25년 수리시설개보사업 및 재해위험개선사업 공정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지구에 대한 만회대책을 토의하는 등 지사별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김동인 본부장은 평년대비 60%이하(주의 단계) 저수지 17개소에 대한 급수대책을 수립해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침수피해를 대비해 6월 이전에 배수로 등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등 가동태세 유지, 수방자재 및 장비를 전진배치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고, 기상특보시 비상근무태세유지를 철저히 하는 등 재난 발생시 현장조사 및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동인 본부장은 "개보수사업 공사현장 재해위험요소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홍수기 이전에 취약시설 전수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는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2025년 '결핵예방의 날' 행사…결핵 인식 개선·경각심 고취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2025년 결핵예방의 날 행사를 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복도에서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한 호흡기감염 질환으로 주로 폐결핵을 유발하며,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결핵균에 감염된다.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등 다른 호흡기질환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에 2~3주 이상의 기침과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 및 치료해야 한다.

전북대병원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 관리 중요성, 결핵에 대한 경각심 고취'시켜 결핵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내방객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핵과 잠복결핵의 진단 및 치료, 기침예절 실천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25년 결핵예방의 날 행사를 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복도에서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전북대병원>

이날 병원은 내방객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핵과 잠복결핵의 진단 및 치료, 기침예절 실천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됐다.

또 결핵 관련 홍보물을 배부해 결핵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됐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은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한 호흡기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침예절을 잘 지키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는 결핵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공공형계절근로자 조기 정착 교육 실시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26일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석)에서 영농인력 수급 안정과 지역 농업경제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형계절근로자 조기 정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영농 환경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한국 문화 예절 교육, 기초 한국어 교육과 근로과정에서 야기되는 안전, 범죄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뿐만 아니라 임실군청, 임실경찰서, 임실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의무교육, 화재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전북농협은 "만성적인 농촌일손부족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지난해 11개소로 운영되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올해 14개소로 확대해 추후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조기 정착 교육 및 안전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온누리신협, 푸른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 맞춤형 경제 교육 진행

온누리신협(이사장 박근규)은 '2025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 업무협약식과 발대식을 지난 26일 남원시 소재 온누리신협 본점에서 가졌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은 푸른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숙희)와 함께 진행했다.

'신협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청소년의 경제교육 및 관계 형성, 따뜻한 금융 실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의 신협과 인근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을 통해 신협 임직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가 돼 건전한 성장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신협 어부바멘토링 사업은 '보건복지부, 신협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협, 아동복지시설' 등과 사업을 10년째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누리신협은 약 8개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된다.

특히 신협 조직 이념을 살린 '협동교육, 효율적인 소비습관, 용돈 관리' 등 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연간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신협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습득과 스스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자질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규 이사장은 "신협 어부바 멘토링을 통해 자립심과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원,유치원 빼 '체험학습 조례' 즉각 수정하라"

전북교육청 "필요성 인정… 구체적 지침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

도내 교원단체가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유치원이 제외됐다며 반발에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으나, 유치원은 법적 정의상 '학교'에서 빠져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유치원생은 초등학생보다 더 취약하며 체험학습 시 성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들을 조례에서 제외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제도적으로 유아 안전을 베제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에서도 '학교안전법'상 학교의 정의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의 조례안은 교육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유아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북교원노조>

전북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만 빠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오준영 회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시·도 조례에 따라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유치원을 보조 인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지원 조례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유치원이 빠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는 교육부의 안내자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어 운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치원 유아의 체험 관련 안전관리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유치원 누리과정에 따른 체험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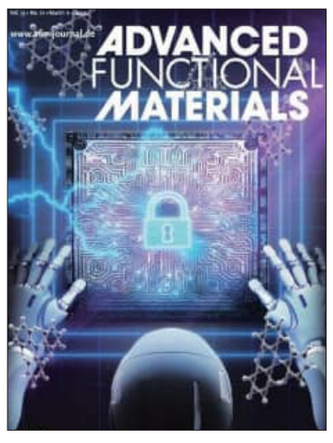
정광운 교수

유동민 연구원

전북대 정광운 교수팀, 정보 암호화 소재 개발

세계적 학술지 표지논문 선정…첨단 보안·위조 방지 기술 기대

전북대학교는 정광운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 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연구팀의 유동민 대학원생이 트리페닐아민 기반의 전기변색 물질을 이용해 광학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암호화 소재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재료과학 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18.5, 상위 4.1%)'의 2025년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트리페닐아민 기반의 단량체를 합성한 뒤 나노수준에서의 배열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광중합 기술로 선택적인 패턴이 가능한 스마트 필름을 제작했다.

이 소재는 평상시에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가 특정 전압이나 편광 조건에서만 발광과 색상의 변화를 통해 정보를 드러내는 첨단 보안 기능을 구현한다.

연구를 주도한 유동민 연구원(사진)은 "트리페닐아민 기반의 전기변색 스마트 필름이 보안 문서, 위조 방지, 개인 정보 보호 분야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나 플렉시블 디바이스 등 미래형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보안 장치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늘봄지킴이 자원봉사자 투입한다

전주 40명 등 늘봄 초등생 안전 귀가 총력 지원… "올해 시범 운영 후 사업 확대 검토"

전북교육청이 늘봄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늘봄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한 귀가 지원과 이를 통한 늘봄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늘봄지킴이 사업은 '인계지점 대면 인계'와 '가정 인계'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인계지점 대면 인계 유형은 자원봉사자가 늘봄교실에서 학생을 데리고 보호자가 기다리는 지정 장소까지 인솔하는 방식이다.

가정 인계 유형으로 학부모 요청 시 자원봉사자가 학생을 집 근처 안전한 곳까지 동행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학생 안전을 고려해 2인 1조의 자원봉사자 운영이 원칙이다.

자원봉사자는 전주에 40명, 군산과 익산에 각각 2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4월까지 수요 조사를 거쳐 희망 학교를 선정하고,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과 대응 투자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배치할 계획이다.

사업의 특성상 자원봉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 및 안전 교육 실시로 신뢰할 수 있는 귀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늘봄지킴이 사업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뿐만 아니라 늘봄 실무 인력의 업무 경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늘봄지킴이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돕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 · 사립학교 이사장 포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 대상에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아동학대로 교원이 피소당할 시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해왔으나 기존 약관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은 제외돼 있었다.

이번에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립학교도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에 약관 개정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표준 약관 지원 금액을 변경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 시 계약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도 5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개정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시설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본관 2층 강당,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교육적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교육 가족과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네이버 폼(https://naver.me/IgJKDAKq)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후 1차(내부 심사) → 2차(심사위원회) → 3차(선호도 조사)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9일 최종 당선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합성·창의성·활용성·대중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하며, 각 공간별로 당선작 2명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시설 명칭 공모는 교육가족은 물론 많은 도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듣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고자 기획됐다"며 "시설의 상징성과 교육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교육 가족과 도민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은 적극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부설초, IB 관심학교 운영… "교육 방향 혁신할 것"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전북미래학교 2년차로서 IB 관심학교 운영을 이어나간다.

군산부설초는 수업 성찰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사 연구와 더불어 에듀테크·AI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생중심 맞춤형 학습을 진행한다.

특히 IB(국제바칼로니아)의 기본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학생중심의 수업을 구현해 2025학년도에는 IB 후보 학교 진입을 목표로 학생들이 우수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구성할 계획이다.

군산부설초등학교 김신철 교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바탕으로 군산부설초등학교의 학생 모두가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꾸준히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총장 박명찬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익산시, 저소득층 소아·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익산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저소득층 소아·성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아암 환자 지원 대상은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동 선정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 그 외 암종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인 암 환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급여·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최대 30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암 진단을 받고 본인부담금 지불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보건소에 진료비를 신청하는 '지급보증제도'도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은 전년도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063-859-4921, 49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암 진단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청년뜰, 'SW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이 군산형 SW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언리얼 기초 활용 과정'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군산형 SW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중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다.

특히'군산형 SW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언리얼 기초 활용 과정'은 최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언리얼 엔진(전반적인 게임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통합형 게임 엔진)과 유니티(3D 및 2D 비디오 게임의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게임 엔진이자, 3D 애니메이션과 건축 시각화, 가상현실(VR) 등 인터액티브 콘텐츠 제작을 위한 통합 제작 도구)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코스페이시스 ▲파이썬 기본 메커니즘 개발▲블루프린트 프로그래밍 기초 및 레벨 디자인 ▲카메라 설정 등으로 수강생들이 언리얼 엔진 기초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간 진행된다. 모집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다.

모집 인원은 SW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군산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10명이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뜰 누리집 (http://gsyouth.or.kr/) 또는 대표전화(063-471-155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소규모 상가 침수 예방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추진

익산시는 침수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차수판은 호우 시 상가 출입구에 설치해 침수 유입을 막는 방재시설이다. 시는 총 3,600만 원을 투입해 차수판 설치비의 80%(최대 120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2024년에 침수 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이며,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상가는 익산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시민안전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확산 박차

㈜큐미스·㈜더가람·토스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투자협약

익산시가 신성장동력인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첨단 기술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큐미스, ㈜더가람, 토스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 홀로그램 기업 3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기업 대표, 김재훈 홀로테크허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는 홀로그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기술 허브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큐미스는 플로팅 홀로그램 및 다시점 영상획득 시스템 개발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확장현실(XR),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며, 국내외 특허 24건을 보유한 기술 강소기업이다.

㈜더가람은 매쉬스크린을 활용한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업체다.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가상현실 기술 특허출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실적을 갖고 있다.

익산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큐미스, ㈜더가람, 토스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 홀로그램 기업 3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익산시>

토스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2D·3D 애니메이션과 프로젝션 맵핑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다.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홀로그램 분야로의 확장이 기대된다.

익산시는 홀로그램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홀로그램 기술 실증 지원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시화 서비스 사업화 실증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3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21곳이 익산으로 이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철길숲 8구간 '어르신 놀이터' 개장

자연 속에서 건강 증진·세대 화합 도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는 군산 철길숲 8구간(어울림)에서 '어르신 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미순)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약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번 사업은 어르신의 신체 여건에 적합하며 활기찬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공간 속에서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세대 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했다.

<사진=군산시>

앞으로 '어르신 놀이터'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군산시니어클럽, 군산시보건소와 연계해 ▲건강체조 ▲라인댄스 ▲어르신 건강리더 프로그램 등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되며, 어르신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고창·부안 여행박람회 공동 전선

27일~30일… 서남권 관광명소 알리기 등 수도권 관광객 유치 '총력'

정읍과 고창, 부안이 힘을 합쳐 수도권 관광객 잡기에 나섰다. 세 도시가 뭉친 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이하 서남권협의회)는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최되는 '2025년 내 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공동 홍보에 나선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누적 방문객 220만 명을 기록한 국내 대표 여행 박람회다.

서남권협의회는 정읍·고창·부안 각 지자체의 관광 매력을 한데 모아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람회 현장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을 겨냥해 관광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준비했고, 매일 세 차례씩 이벤트를 열어 방문객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나눠줄 예정이다.

<사진=정읍시>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여자에게는 기념뱃지와 귀리쌀강정, 기념엽서와 귀리(80g), 복분자 미니어처 등이 제공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 철도여행'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철도여행 이용 시 운임을 5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내장산의 아름다운 봄 등 정읍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알리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농촌 일손 돕는 베트남 계절근로자 맞이

1차 101명 입국 완료 · 31일 2차 99명 추가 입국 예정

익산시가 올해 농촌 일손을 거들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두팔 벌려 맞이했다.

익산시는 27일 고도한눈애(愛) 세계유산센터에서 '베트남 애아숩현 계절근로자 환영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애아숩현부터 익산까지 3,000여㎞를 날아온 근로자 101명이 참여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고용 농가 관계자들은 낯선 곳으로 일하러 온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근로 환경과 생활 수칙 등 원활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공유됐다.

올해 익산시는 지역 37개 농가에 200명의 베트남 MOU 계절근로자를 배치한다. 1차 입국자는 101명이며, 오는 31일 2차로 99명이 추가 입국한다.

이들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근무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대학생 '천원 아침밥' 지원

원광대·원광보건대 대상… 하루 최대 130명

익산시가 지역 대학생의 힘찬 하루를 응원하고자 아침 식사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기 중 하루 최대 130명에게 총 114일간 아침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 끼당 국비 2,000원, 도·시비 1,000원, 학교 1,000원인 사업에 익산시는 양질의 식단 제공을 위해 5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학생들은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

특히 원광보건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형 아침밥 공급 모델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인 청년식당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당일 조리한 음식을 볶음밥·컵밥·4찬 도시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산불 예방수칙 준수' 호소

강임준 군산시장이 산불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27일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는 울산·경북·경남의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 발생으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으로 산불 예방과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산시는 먼저 관과소, 읍면동 특별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예방 및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마을 방송 및 재난안전문자 송출 확대 등으로 산불 예방 경각심을 고취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산불감시원 45명, 산불진화대 45명을 거점별로 분산 배치하여 주요 산림지역 예찰 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에 나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6개소를 활용,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 조기 발견에도 집중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산불 예방은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발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2025년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정읍시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에 등록된 청년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장기 연체로 신용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시가 분할상환 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채무원금의 10%,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통해 신용도 판단정보를 해제하고,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감면해준다. 분할상환 기간은 채무액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초입금 지원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운영하며, 10% 전액을 납부하면 지연배상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면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며,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tpdud355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도 등록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 지원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 관련 문의는 청년지원팀(063-539-56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시, 국공립 라송도담어린이집 개원

익산시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익산시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이달 국공립 라송도담어린이집을 개원하고, 27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위탁 운영기관 관계자, 학부모, 보육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라송도담어린이집은 송학동 익산라송센트럴카운티 공동주택(866세대)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정원 61명, 지상 1층, 면적 335㎡ 규모로 보육실 4개와 유희실 1개가 마련됐다.

시는 총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 가구 설치와 교재 구입 등을 지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영유아 부모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다.

아울러 보육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익산시에는 총 2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익산역하늘채더퍼스트·익산자이그랜드파크, 하반기에는 중흥S클래스·부송데시앙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중소기업 지원 확대

경기침체 해소 업체당 최대 2천만원…총 4억 4천만원 투입

부안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총 4억 4000만원을 투입해 복지 편익·근로환경 개선사업 및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과 기숙사 1실당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한도 내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은 오는 6월 사업 공고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관내 연매출 기준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 대출금의 이자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 지원사업도 적극 실시한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기업은 부안군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군과 관내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 첫 삽

행정업무·주민교류·문화교육 한곳서…오는 2026년 4월 준공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림면 무림리에서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사진=고창군>

고창군 신림면의 행정·소통 거점 공간이 될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첫 삽을 떴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림면 무림리에서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행사는 신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회(위원장 유종팔) 주관으로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조민규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3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신림면 종합복지회관 뒤편에 지어지는 '행정문화복합센터'는 총 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연면적 998㎡ 규모의 2층 건물로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공유주방 등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용하는 복합적인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신림 외곽에 있고 낡고 비좁았던 기존의 신림면 행정복지센터가 은행과 보건지소가 있는 중심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행정·문화·복지·금융·체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도보 5분내 해결하면서 신림면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늘 기공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추진위원들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읍·면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고창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85억 투입

2028년까지 지역맞춤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구체화

김제시는 27일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시의원, 국·소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더 자주,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27일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시의원, 국·소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연간 9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모악산 일원을 대상으로 더많은 관광객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동부권 관광 활성화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악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관광소비 증가를 유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시설 구축과 야간경관 개선, 공연 콘텐츠 개발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체화 나가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희옥 부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모악산 도립공원이 우리 김제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밑그림이 그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분야에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025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약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모악산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생산 역량 강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교육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고창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일 오전10시 고창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에서는 GAP의 개념과 필요성, 인증 절차, 농산물 안전관리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신규 인증을 원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존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농업인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또한,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GAP 인증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물론,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선정

숙박·식음·관람 등 5가지 지역여행 혜택 이용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5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여행 함께해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여행정보 서비스 '대한민국구석구석' 웹·앱에서 발급하는 지역의 명예주민증으로 관광주민은 숙박·식음·관람·체험·쇼핑 등 5가지 유형의 지역여행 혜택 이용이 가능한 사업이다.

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 지평선 여행'을 테마로 김제만의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확립 및 전국적 홍보를 목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통한 김제만의 핵심 콘텐츠 체험으로 관광객의 만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김제만의 지역관광 콘텐츠 키워드를 산(모악산), 들(지평선), 강(동진·만경), 바다(서해·새만금)로 선정하고 김제의 관광(8), 쇼핑(3), 숙박(6), 식음료(19), 체험(7) 등 총 43개 장소를 방문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선정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혜택의 궁금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접속하면 확인 할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자체를 포함한 이미 시행중인 지역의 혜택을 모두 받아볼 수 있으며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최대 5년간 지원

고창군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 있다.

사업은 지난 2021년 청년후계농 대상자 중 바우처 지급이 끝난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2년간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은 토지구입, 시설 마련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하지만 기존 지원은 3~4년 정도에 불과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이 절실했다.

이에 군은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청년농업인의 성장과 농업 규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부안군>

부안군, 농번기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운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매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확대 운영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상서면 내변산로 1840-5에 위치한 본소로 경운·정지 기종부터 관리기, 파종기, 퇴비살포기 등 총 46종 373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군은 이번 토요일 운영을 통해 평일에 농기계를 임대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전화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임대 가능한 농기계 목록과 세부 사항은 부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양녕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수도사업소, 본청서 검산동으로 이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8일 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시 본청에서 검산동으로 이전하고 오는 3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9일 조직을 개편하면서 '김제시 상하수도과'를 '김제시 수도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사무실을 검산동 1052-6번지, 2층으로 이전한다.

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배수지 송수관로 확장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상수도 및 하수도 업무를 추진한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실 이전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 SNS, 새만금지평선소식지, 현수막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김제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시민 중심의 물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보건소, 골다공증 조기 발견 골밀도 검사 연중 운영 '호응'

고창군보건소가 군민의 뼈 건강을 위해 골밀도 검사를 연중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화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골격계 질환이다. 골다공증은 생활개선 및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예방·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 발견을 위해 골밀도 검사는 필수적이다.

골밀도 검사는 뼈의 밀도를 측정해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을 평가한다. 폐경기 여성 및 70세 이상 남성에 권장하고 있지만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인 50대 이후부터 검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골다공증은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치료가 중요하다"며 "골밀도 검사는 뼈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보건소 영상의학실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정비 4월 개방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문화체육공원 편백숲 일원에 자연형성된 맨발걷기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편백나무숲 사이를 맨발걷기에 이용하면서 맨발걷기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으며, 시는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말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비사업은 자연 길 그대로 살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산책 노면과, 길 주변의 환경을 정돈했으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황토체험장과 세족장을 설치했다.

맨발 걷기는 자연의 다양한 질감을 발로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산책환경 개선을 통해 맨발걷기 이용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이 정비된 맨발걷기길을 통해 자연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출하 농가 교육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6일 부안신활력공작소에서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출하 농가 20명이 참여했으며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의 이해를 돕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직매장 출하기준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출하 농가에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의 목표와 추진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로컬푸드인증제,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직매장과 농가간 소통을 강조했다.

또 직매장 출하 및 회수방침과 품질관리 기준을 안내하며 신규 농가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출하 농가들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신뢰도 높은 지역농산물을 출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안 로컬푸드 활성화와 푸드플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순창, 산불 신속 대응…대형 확산 막아

피해면적 3ha, 현장 350여명 투입 산불진화장비 총동원
최영일 군수 현장 진두지휘…1시간 30분 만에 주불 진화

순창군이 지난 26일 밤 12시까지 순창군 쌍치면 양촌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초동 진압에 성공하며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았다.

이날 현장에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205명, 산불전문진화대(군청) 24명, 산불전문진화대(읍면) 12명, 이동감시원 14명, 소방서 23명, 경찰 13명, 기타 50명 등 350여명이 산불진화에 투입됐다.

순창군은 지난 26일 밤 쌍치면 양촌마을 인근서 발생한 산불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초동 진압에 성공하며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았다. <사진=순창군>

특히 이날 순창군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도중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회의를 중단시키고 현장으로 달려간 최영일 군수는 산불진화선 구축과 잔불 정리 등 직접 산불진화 현장을 지휘했다.

초기 산불 발생 직후 주민들의 신고와 함께 쌍치면 소방서와 경찰이 즉각 출동했으며, 순창군 역시 긴급재난대응팀을 가동하며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섰다.

즉각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 군은 소방차 8대(덤프차 포함), 물탱크 5대, 구급차 2대, 산불임차헬기 3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용장비를 총동원시켰다.

산불이 발생한 오후 3시 이후 1시간 30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한 군은 추가 산불발생을 우려해 밤늦게까지 잔불정리에 주력했다.

나무 벌채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실화를 추정되고 있는 이번 산불로 군은 발화지로부터 인근 산림 3ha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 작업복 세탁 지원 협약

완주산단 중소기업 25개사 혜택…산업오염물질 제거로 근로자 건강 보호

완주군이 근로자들의 작업복 세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26일, 완주군은 전북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전북산학융합원, 대표 참여기업, 전문세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심부건 의원, 강승구 전북산학융합원장, 김상곤 한국노총완주지역지부 부의장과 참여기업 25개 사가 참석했다.

<사진=완주군>

협약을 통해 ㈜뉴텍, ㈜대동철강, 동해금속㈜, 한일특장㈜ 등 완주산단 소재 중소기업 25개사가 세탁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작업복에 묻어있는 산업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참여기업은 작업복 세탁 및 수거·배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세탁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깨끗한 작업복과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강남제비스코와 사회공헌활동·남원색 개발 '맞손'

남원시가 27일 강남제비스코와 사회공헌활동 및 남원색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는 2024년 말 광주대, 울산과학대 등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번 강남제비스코와의 협약은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남제비스코는 대중들에게 제비표 페인트로 잘 알려진 기업으로, 올해 80주년을 맞이한 색 전문 기업이니만큼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남원색 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순창군>

순창군의회, BF인증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인증 취득 소요 기간 길어져 신축 지연…제도 취지 무색"

순창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 시설물 이용 및 지역을 접근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BF 인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인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신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순창군은 최근 5년간 BF 인증 신청 건수가 총 45건에 이르며, 예비인증은 평균 157일, 본인증은 평균 167일가량 소요됐고, 최장 320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인증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30건이었던 인증 신청은 2023년 2,422건, 2024년에는 2,640건으로 연간 2,000건 이상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BF 인증 평가기관의 부족과 평가기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해석은 BF 인증 취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주 요인"이라며, BF 인증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전북은행 남원지점, 고향사랑기부 1,700만원 기탁

<사진=남원시>

전북은행 남원지점(지점장 박은영)이 26일 남원시청(시장 최경식)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700만원을 기탁했다. 전북은행 남원지점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첫해인 2023년 1,0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2024년 1,500만원, 올해 1,700만원 기부로 누적기부액 4,200만원을 달성해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과 남원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모인 기부금으로 2024년에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지원(중학생 24명, 2억원) 및 남원제일고 현장실습용 푸드트럭 지원(1대, 8천만원) 사업을 시행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인문·문화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을 위한 인문·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인문·문화 교실은 청소년들이 철학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좋은 질문 찾기 ▲우리는 자연 속에 산다 ▲'착함과 나쁨'에 대한 탐구 ▲공부 없는 토론 교실 등 철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종합 돌봄 서비스로,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감사담당관, 읍면동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남원시에서는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읍면동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23개 읍면동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6대분야(회계, 공사, 보조금, 산업, 사회복지, 민원) 51건으로 구성된 이번 업무매뉴얼은 12개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 절차, 지원대상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행정절차가 많은 공사계약업무와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소통하는 산업·복지분야를 중점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누수를 방지하고 읍면동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만성산업 전인석 대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유)만성산업 전인석 대표가 27일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유)만성산업은 모래, 자갈, 산림 골재 채취 및 혼합골재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전 대표는 순창군 동계면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계기로 순창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인석 대표는 "비록 순창이 제 고향은 아니지만, 사업을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으로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오픈마켓 입점 농가 판촉 지원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증대를 위해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등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입점한 지역 내 단체 및 기업, 농가를 대상으로 반딧불 농특산물 상반기 판촉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입점 단체 및 기업, 농가는 '적상면 복숭아 연구회'와 '여름 두릅 작목반' 등 18곳으로 무주군은 사업비 4천8백여만 원을 투입해 △오픈 마켓 내 상세 페이지 제작과 △20% 할인쿠폰 △바이럴 마케팅 △행사 배너 디자인 △기획전 지원 등 마케팅 전반을 지원한다.

또 △택배비와 △포장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을 도우며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완식 과장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되면서 판로를 다각화해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와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며 "농특산물 수확시기에 맞춘 판촉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처 운영 등 판로 다양화를 통해 매출액의 10% 이상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으로, 오픈마켓 판촉 외에도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비롯한 직거래 지원 사업, 사이버 쇼핑몰 운영,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 머루와인동굴 운영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주민 2백여명에 의료 서비스 제공

진안군은 27일 진안농협 대회의실에서 진안읍 등 7개 지역 주민 2백여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농협 등 기관 간 협력으로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추진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주민,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한방진료, 치과대학에서 구강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다비치안경원에서는 시력 측정을 하고, 대상자에게는 무상으로 돋보기를 지원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시작되니 지쳐서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귀가까지 도와주니 더없이 좋다"며 만족함을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추후 백운농협, 부귀농협에서도 추진 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장수지역자활센터, 봄맞이 환경정화 '줍깅'

장수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구중)가 한누리전당 일원에서 봄을 맞아 환경정화 봉사활동 '줍깅'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ESG경영 실천 중 하나로 진행한 이번 '줍깅'은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봉사문화 확산을 목표로 장수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참여자들은 한누리전당 일원의 도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실천하며 환경정화에 힘썼다.

한편 장수지역자활센터는 장수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시장진입형 사업단(3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3개) 등 총 6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재활용품 교환 연중 추진

다 쓴 종이팩·폐건전지 수집, 새 화장지·건전지로 교환 환경 의식 고취

임실군이 재활용 분리배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화장지와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일정량의 종이팩, 폐건전지, 젤 타입의 아이스팩, 상패를 수집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져가면 교환 기준에 따라 새 화장지,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준다.

교환 기준은 품목별로 △종이팩 1,000ml 5개, 500ml 10개, 200ml 20개 △폐건전지 10개 △아이스팩 5개 △상패 2개당 롤 화장지 1개 또는 새 건전지 1개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헹군 뒤 펼쳐 건조하면 되고, 아이스팩은 젤 타입의 아이스팩만 교환 대상이며, 세척 후 말려서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된다.

우유, 주스, 두유 등의 종이팩은 수입에 의존하는 최고급 천연펄프를 사용해 제작된 우수한 자원이며, 분리 배출하면 고급 위생지로 재활용될 수 있다.

폐건전지는 수은, 니켈, 아연,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함유돼 있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게 되면 중금속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유용한 금속자원으로 재활용된다.

군은 이에 따라 재활용품에 대한 올바른 배출과 수거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 의식 전환 등을 위해 교환 사업 연중 추진은 물론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 지원사업으로 수거된 아이스팩 700여 개를 세척 작업을 거쳐 관내 시장상인회에 나눠주어 재사용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자영업자들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사진=임실군>

심 민 군수는 "종이팩, 폐건전지 등의 올바른 배출이 환경오염 예방과 중요 자원 회수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재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품 교환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산불 철저 대비" 당부

배종수 산림과장과 산불 감시초소 직접 방문…산불감시원 등 노고 격려

장수군은 27일 봄철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최훈식 장수군수와 배종수 산림과장이 관내 산불 감시초소를 직접 방문해 산불 예방과 산불 초기대응 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한 산불이 확산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된 가운데 최 군수가 직접 지역 내 산불감시초소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 것이다.

최 군수는 계북면 원촌리, 장계면 명덕리, 장수읍 노곡리 등 7개 읍면 감시초소 현장을 찾아 산불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초기 대응을 산불감시원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장수군>

장수군은 27일 산불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최훈식 장수군수와 배종수 산림과장이 관내 산불 감시초소를 직접 방문해 산불 예방과 산불 초기대응 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최훈식 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 세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스마트 경로당 개통··치매예방 AI 등 배치

무주군이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 중인 가운데 지난 27일 1차년도 사업 완료를 알리며 무주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6천2백만 원을 투입해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한다.

1차 년도 사업분인 55개 경로당에는 화상회의·학습서비스, 치매예방·헬스케어 서비스, 생활안전·화재감지 서비스 시스템을 모두 갖췄으며 경로당마다 화상회의 장비와 체성분 측정기, 혈압 측정기, 치매예방 AI 등이 설치돼 활용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회의와 교육, 정보 등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날 개통식도 해당 경로당 55곳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용 어르신들을 참여시키는 등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나머지 45개 경로당에 통합운영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한 교육, 건강,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통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스마트 경로당은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어르신 맞춤형 공간"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오락과 여가, 소통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두가 누리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무주군은 올 한해 맞춤형 서비스로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이룬다는 방침으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외에도 독거노인 통합 돌봄과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33명 입국

27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는 협약 체결국인 필리핀 계절근로자 33명이 입국해 농가주 15명과 반가운 만남이 이뤄졌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 33명은 지난 1월 담당 부서인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과 농촌일손지원센터가 필리핀 현지에 직접 방문해 최종면접을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신규 근로자들이다.

이 날 농가주들은 본격적인 영농 활동을 함께 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맞이와 더불어 군청 인력지원팀으로부터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애로 사항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후 관리 민간 위탁기관인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로부터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베트남, 영어 언어 소통 도우미, 상담 직원들을 소개 받는 등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입국으로 현재 진안군에는 협약 체결국 필리핀 92명과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68명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명이 영농 활동을 돕고 있다.

진안군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2025년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총 807명을 도입하며 월별 농가 수요에 맞춰 4월 509명, 5월 126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원활한 농가 배치를 위해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영농 적기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진안군에서는 개별 농가들의 농업경영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 막 올려

초등학생 84명 참여, 오는 11월 6일까지 진행

'2025년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이 지난 27일 시작됐다. 무주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 무주군축구협회 성준경 회장과 '팀차붐' 차범근 이시장을 비롯한 '풋워크리에이션' 차세찌 대표와 참여 학생(84명) 등 2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덕담을 나누고 기념촬영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차범근 이사장은 무주군으로부터 명예군민증을 받았다.

명예군민증은 군정 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지역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해외교포, 또는 다른 지역 출신 인사들에게 주는 것으로, 차범근 이사장은 축구교실을 통해 무주지역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무주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해 이날 명예무주군민이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선수와 지도자, 해설가, 행정가 등 다방면에서 뜨겁게 활약하고 있는 차범근 감독의 열정이 우리 지역 아이들의 자신감과 미래 꿈을 키우고 있다"라며 "축구교실이 해마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범근 이사장은 "무주군의 명예군민이 돼 무척 기쁘다"라며 "무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무주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정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팀차붐(이사장 차범근)'이 주최하고 '풋워크리에이션(대표 차세찌)'이 주관하는 2025년도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은 오는 11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무주군 지역 내 초등학생 84명이 차범근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 지도자들의 코칭을 받으며 대회 리그전 등을 경험하게 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산불 재난 유관기관 협력 방안 논의

임실군이 지난 26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산불 재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진관 부군수 주재로 임실군청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실군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매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결합되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지난해에는 몇 차례 산불로 인해 산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각 기관은 산불 발생 시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군은 이번 회의로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을 알리고, 지속적인 산불 예방 예찰 및 계도를 통해 산불 위험을 최소화해 주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불임 예상 군민에 생식세포 시술 비용 지원

진안군이 오는 4월부터 항암치료나 질병으로 인해 생식건강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회에 한해 본인 부담 시술비용의 50%(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이다.

단, 지난 1월 24일 이후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후 시술비를 납부한 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면 된다.

진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학적 치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불임이 예상된 사람에게 가임력 보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군교육지원청, 교육정책 방향·발전 논의

초·중·고 교육 발전 간담회

임실군이 지난 25일 임실교육지원청과 지난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부임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임 교장 5명과 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교장들이 학교별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만남의 자리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의 운암초, 덕치초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함께 대응 중인 임실동중, 지역 특화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특성화고인 전북펫고·한국치즈과학고 교장까지 총 5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 자리에서 신임 교장들의 학기 초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및 어려움에 대해 청취했으며,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이 함께 대응·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수면에 위치한 전북펫고의 경우 지난 2024학년도부터 공업계고에서 반려동물 특성화 고등학교로 변경 운영 중이다.

임실군이 오수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교육발전특구로 추진 중인 반려누리학습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유일한 한국치즈과학고는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 실습용 원유 공급처 확보 등에 대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간담회가 신임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순창군청 역도팀 전병헌 선수, 3관왕 달성

제79회 전국 춘계 남자 역도대회서 102kg급 인상 150kg 합계 331kg 대회 신기록

순창군청 역도팀 전병헌 선수가 제79회 전국 춘계 남자 역도대회에서 102kg급 부문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순창군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서천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됐으며, 전병헌 선수는 26일에 열린 대학부 및 일반부 102kg급 경기에 출전했다. 102kg급 경기는 모두 실업팀 선수들만 참가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으며, 그 중 전병헌 선수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순창군청 역도팀 전병헌 선수가 제79회 전국 춘계 남자 역도대회에서 102kg급 부문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사진=순창군>

전병헌 선수는 인상 150kg, 용상 181kg, 합계 331kg을 들어 올리며 인상, 용상, 합계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인상과 합계 부분에서는 대회 신기록으로, 그의 뛰어난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였다.

이는 지속적인 훈련과 순창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장수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취약계층 위해 백미 35포 기탁

장수군 의용소방대가 지난 26일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및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10kg) 35포(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송영자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장수군 의용소방대원들은 평소 지역 내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며 "대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화재 예방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기부를 통해 온정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기부 물품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김제시 가족사랑요양병원 효도리사업단, 도시락 세트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6일 김제시가족사랑요양병원의 효도리 사업단이 180만원 상당의 도시락 60세트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접만든 도시락(제육볶음, 메추리알 돈육장조림, 버섯들깨탕, 모듬전, 과일야채 샐러드)은 관내 저소득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가족사랑 요양병원 박진만 이사장은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도시락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신선한 식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을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옥 부시장은 "지역사회와 적극소통하며 소외계층을 돕는 데 힘쓰는 효도리 사업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제시에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단편영화 '네모과자' 국내외 영화제서 눈부신 성과

천안국제초단편영화제 금상 · 시카고 블로우업 아트하우스 필름 페스티벌 준결승작 선정

군산문화관광재단 지원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의 2024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단편영화 '네모과자'(영문명: Square Cracker)가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 연이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큰 화제다.

'네모과자'는 천안국제초단편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시카고 블로우업 아트하우스 필름 페스티벌(Blow-Up Arthouse Filmfest, Chicago)에서 준결승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전주국제단편영화제 비경쟁 부문, 서울한강국제영화제 본선에도 이름을 올리며 국내외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국제 아마추어 필름 페스티벌(British International Amateur Film Festival,www.biaff.org.uk)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5 Star) 분야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본 영화제 연기상(이영숙), 촬영상(김수호), 음향상(김진성) 부문에도 나란히 후보에 오르며 제작진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화 '네모과자'는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가 다급히 연락을 시도하지만, 다행히 초췌한 모습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말없이 '에이스' 과자를 건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상 속 무언의 감정과 긴장감을 섬세하게 포착한 17분 분량의 단편영화다.

'네모과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영화제 출품을 이어갈 예정이며, 군산지역 영화 제작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산=지송길 기자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 고향사랑기부금 330만 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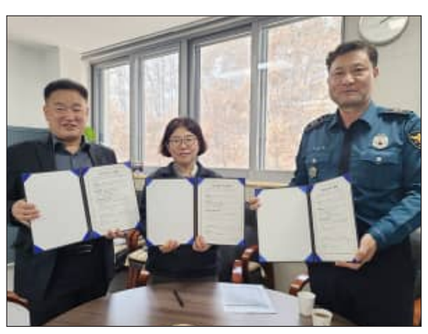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 회원들이 지난 27일 무주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3백30만 원을 기탁했다.

이종선 회장은 "지금은 타향에서 살고 있지만 회원들 모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며 "고향 무주가 발전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출향인들로 구성된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는 회원이 총 50명으로 2014년부터 차량 50대를 활용해 랩핑을 활용한 무주반딧불축제를 비롯한 농특산물, '고향사랑 무주사랑(고향사랑기부제)' 등 무주군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해마다 무주군 지역에 이웃돕기를 비롯한 장학금 총 3천만 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도 시행 첫해인 2023년부터 총 1천80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남원 덕과면 보이스피싱 OUT, 안전마을 프로젝트 추진

사기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면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행정과 경찰, 지역 농협이 협력키로 했다.

남원시 덕과면(면장 성월계)은 지난 25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덕과면장, 덕과파출소장, 남원농협 덕과지점장이 참석했으며, 각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먼저, 이번 협약을 통해 덕과면은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1일 1가구 방문』과 연계하여, 직접 주민을 찾아가 주요 사기수법을 안내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덕과파출소는 지역 내 주요 직능단체(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남원농협 덕과지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받는 고객을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 발견 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정읍시>

브릴리언스팀, 장애인쉼터 조성 사회공헌 활동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브릴리언스팀과 신태인파출소(소장 최규상)는 협력하여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브릴리언스 팀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250만원 상당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애인쉼터 조성을 위한 봉사 활동 및 장애인쉼터에 들어가는 가전·가구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게 라면 20박스의 후원 물품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브릴리언스팀은 공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빈곤 국가와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전개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운영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무주군>

전북 적십자, 산불 이재민 구호활동 전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밤사이 발생한 무주군 부남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이재민에 대해 재난구호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재난문자를 받고 대티마을회관과 부남면사무소로 긴급 대피한 부남면 4개 마을 주민들에게 담요 200개를 지원했으며 적십자봉사원을 비상소집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이재민을 위한 급식활동을 펼쳤다.

신은영 적십자봉사회 무주군협의회 회장은 "연이은 산불 소식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봉사로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산불 피해 돕기 긴급모금을 진행중이다.

모금 참여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또는 네이버 해피빈에서 가능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5대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 출범기념 성금 345만 원 기탁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이 제5대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오은정) 공식 출범을 기념하며, 군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합원 345명의 염원을 담은 성금 345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기탁식에 참석한 오은정 위원장은"출범식을 치르는 대신, 지역사회에 작은 온기를 전하는 것이 노조 출범에 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라며, "공무직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조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一事一言〉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3)

유시민
작가

예컨대 기초연금을 '전국민 최소연금'으로 확장하고 국민연금을 완전한 재정 안정성을 갖춘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해 기금 고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나는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나아갈 것이라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던 2006년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가 오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6. 적립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렵다. 4차 재정계산의 기금고갈 시점이었던 2057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총인구는 4219만 명, 노인인구는 전체의 44퍼센트인 1871만 명이다.

노인의 60퍼센트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수급자는 112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 2103만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70퍼센트로 추정하자. 실업자가 없고 취업자 전원이 예외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47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납부예외자나 장기미납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시점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수와 연금 수급자의 수가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 해도 소득활동을 하는 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보험료로 징수해 연금을 지급할 수는 있다. 국민연금을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럴 경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할까?

외국 사례를 보자. 80년 동안 부과식 연금제도를 운영해온 독일 정부는 최근 소득대체율을 43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소득의 22퍼센트 수준에 묶는 방안을 추진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2057년 한국은 현재의 독일보다 노인 비율이 훨씬 높다. 22퍼센트 수준의 보험료율로는 43퍼센트의 소득대체율을 충당하지 못한다. 독일과 같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려면 연령별 인구 편차가 줄어 인구 피라미드가 막대형으로 바뀔 때까지 최소한 30년 이상 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늦추어야 한다.

적립금 고갈 시점을 십 년 정도 늦춘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재정을 안정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해 시간을 벌었다는 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7. 특수직역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모두 합쳐 150만 명이 넘는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해마다 두 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6조 원 넘는 재정을 지출했다. 사학연금도 2033년 첫 적자를 내고 2048년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그때가 되면 정부는 특수직역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마다 25조 원 넘게 써야 할 것이다.

특수직역연금의 기본형인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과세소득의 18퍼센트(절반은 국가 부담)이고 수익비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1.7이다. 수익률은 조금 낮아도 보험료율이 높아서 혜택은 국민연금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50여 만 명 중에 월 3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5퍼센트이고 40퍼센트가 200-300만 원을 받는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월 300만 원 이상 수령 비율은 각각 48퍼센트와 34퍼센트나 된다. 적립금이 고갈된 지 수십 년이 지났거나 조만간 고갈될 예정인 특수직역연금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최소한 국민연금 수준에 접근하는 재정 안정화 개혁을 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올리기 어려우면 소득대체율을 대폭 내리는 게 합당하다.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2007년과 다른 듯하다. 그때보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와 기권표가 많이 나왔는데도 논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개정 이후에도 몇몇 정치인들이 뒷북을 치며 청년들을 선동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18년 전에는 수백 개의 진보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법 개악'을 비난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정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끝나지 않는 내란사태 때문일 것이다.

이해한다. 판사와 검사들이 '마법의 산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불법 비상계엄과 국회 침탈 장면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은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 나라가 군사정권 시대로 수십 년 퇴행하는 마당에 국민연금 따위야 어찌 되든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래도 한 마디는 해두고 싶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다. 글이 길어졌다. 독자들이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다 거론하다 보니 그리 되었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검찰의 정치적 편파 기소, 해체가 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판결 번복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결탁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검찰의 행태는 정치보복의 전형이며 특정 정당과 정적을 겨냥한 편파적 수사였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한 것이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은 '인식'에 대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지적됐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결론이며, 오직 검찰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죄를 만들어 기소했던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으로 '인식'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교유 행위'라는 신조어까지 들이대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궁색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국정감사 도중 나온 답변이었음에도 억지로 문제를 삼아 기소한 것이다.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를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정치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정권의 충견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무려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조차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이며 별건 수사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백현동 사건은 20년도 더 지난 일을 끄집어내어 끝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표적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다. 더 나아가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핵심 증인과의 플리바게닝(사법거래)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검찰의 태도가 180도 다르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피의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석방됐고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는 검찰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던 윤석열 정권의 이중잣대는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켰으며,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다.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칼을 휘두른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대가는 국민이 엄히 심판할 것이며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편파적 기소와 정치보복을 멈추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 해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 독자광장 |

정적 제거하는 검찰정치 더 이상 안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야당의 정치지도자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제거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축구경기를 예로 들면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해 골을 넣고 이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경기시간 내내 심판을 쫓아다니며 상대팀 선수가 반칙(?)을 범했다고 퇴장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보다 심판을 압박해 오로지 상대팀 선수가 경기를 못 뛰게 하는 데만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소년공 출신으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공 신화를 통해 유력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대표를 정치 경기장에서 퇴장시키는 데만 몰입해왔던 것이다.

스포츠가 존중받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며 결과에 승복하기 때문이다.

이번 2심 선고 직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라던 여당은 일부 무죄도 아닌 전부 무죄의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자세이다.

사법부의 선고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양식있는 국민들의 마음에도 아랑곳하지않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전광훈을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부대의 극우 보수세력에 기대어 진영 간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유고라는 최악의 국가위기 상황에 국가경제는 속절없이 뒷걸음질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피울음소리에 서민들의 생존 위기가 고양되고 있지만 오직 국가권력만 소유하면 된다는 심산이다.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겸손해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음을 자각해야만 한다. 윤석열의 계엄을 막아내는 힘은 국민들의 저항 노력과 함께 3권 분립이라는 완성된 틀 안에서 입법부의 기능이 적시에 작동되었던 사실은 불문가지이다.

이러함에도 입법부의 한 축인 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에 이념의 잣대로 판결을 제단하는 모습은 정치가 아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지매일 뿐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결과에 검찰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수백명 넘는 검사를 투입했다는 사실은 검찰 흑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헌재 파면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는 등 무수히 많은 실언과 사실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사실관계만으로도 이미 검찰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었음은 부인할수 없다.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다. 어떤 정치인의 역량과 능력이 넘사벽이라 해서 제거해버리는 극단적인 정치행태다. 정치인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키며 사법살인을 자행했던 이승만 정권과 민주주의 열망으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은 야당지도자를 끊임없이 탄압했던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이 같은 행태에 더욱 분노하며 민주화를 향한 열정으로 지금은 세계 속에 K-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정적제거에만 몰두했던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 현대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은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죽이기에 몰두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이들의 주구가 되어버린 정치검찰은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기를 바란다.

금번 판결의 의미를 여와 야를 포함하여 양식있는 국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사필귀정'이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이다.

/이돈승 특보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소통특보
현)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현)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

금요시선

홍수 / 신경림

혁명은 있어야겠다.
아무래도 혁명은 있어야겠다.
썩고 병든 것들을 뿌리째 뽑고
너절한 쓰레기며
누더기 따위
한파람에 몰아다가
서해 바다에 갖다 처박는
보아라, 저 엄청난 힘을.
온갖 자질구레한 싸움질과
야비한 음모로 얼룩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벌판을
검붉은 빛깔 하나로 뒤덮는
들어보아라,
저 크고 높은 통곡을,
혁명은 있어야겠다.
아무래도 혁명은 있어야겠다.
더러 곳곳하게
잘 자란 나무가 잘못 꺾이고
생글거리며 웃는 예쁜 꽃목이
어이없이 부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때로 연약한 벌레들이
휩쓸려 떠내려가며
애타게 울부짖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지켜보는
허망한 눈길이 있더라도.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충주고와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낮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한동안 생활고로 동네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며 끼니를 때웠다. 그러면서 '원격지', '산읍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하며 작고한 시인들과 생존 시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산시건강센터, 건강 더하면 행복은 덤

◆ 남부·서부·동부 3개 권역 주민 대상 건강증진사업 전개
◆ 지역 밀착형 보건정책 눈…주민 곁으로 다가간 건강관리 사업

익산시가 '주민 생활 밀착형 보건복지'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별 건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남부·서부·동부 3개 권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부 센터의 경우 2년 연속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실질적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남부권: 시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전북권 최초로 문을 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업·뱃살쏙 운동교실 △다이로운 건강운동교실 등 노년층 대상 신체활동 중심 프로그램과 △단짠 내리고 건강 올리고 영양교실 △내혈압·내혈당 바로 알기 교육 등 만성질환 예방 교육이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동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는 소생활권 맞춤형 이동건강체험관과 건강플러스 스마일 경로당 만들기 등을 통해 보건의료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도 높다. 만족도 조사 결과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 중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를 위한 건강 플랫폼

지난해 4월 개관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한다. 모현동과 송학동, 오산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센터 내부에 전북 최초로 조성된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이 특징이다. 4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7개 건강 테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현재 개소 1년 만에 105개 보육기관, 2,36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성인 비만 관리를 위한 '퍼펙트바디 운동교실', 중장년층 대상 '갱년기 건강교실', 노인 대상 '실버건강교실', '다이로운 건강강좌'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동부권: 의료취약지역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어촌 지역(금마면, 왕궁면, 팔봉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족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고령화된 지역 특성상 노년층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UP 혈관지킴이교실', '기억쑥쑥 뇌튼튼교실', '관절튼튼 즐거운 운동교실' 등 노년층 대상 만성질환 예방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 위험군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근육짱짱 플러스교실'은 하루 평균 8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우리 동네 헬스장'으로 자리 잡으며 건강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생활 실천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튼튼한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자율점검은 가족사랑입니다.